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3주차 문학 수업용 해설]

[이승모T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현대시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주차] 문학 수업 지문

실전 훈련 1. 고향 앞에서, 낯은 집(2015학년도 수능)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현대시는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 ②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③ 다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차분히 읽는다. 연 구분이 있으면 연이 의미 단위이고, 연 구분이 없으면 문장이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 ④ 시는 정서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표시해주면 좋다.
- ⑤ 반복되면 중요하다.

[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를 적극적으로 활용.

- ⑥ 시인과 독자에게 있어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감수성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

[지문 해설]

오늘부터는 해설이 문제 풀이 해설 쪽으로 가게 된다. 이 와중에 <보기> 문제 푸는 매뉴얼까지 확실하게 체화해보도록 하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집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거울 헤어륨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뜻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낯은 집」 -

*예제로 : 여기저기로.

[지문, 가능한 것들] - 수업용

(가)

① 제목 확인

- 제목이 '고향 앞에서'이다. 수능에서 '고향' 관련 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서 파악이 가능하다 1) 그리움 2) 상실감이다.

쉽게 말해, 상황이 어느 정도 경해지는데,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 고향이 변하거나 사라져서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리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것을 내재화하면 제목에 '고향'만 나와도 어느 정도 이 시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② 연 단위로 끊어 읽기

③ 보이면 밑줄 긋기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설명을 위한 밑줄. 밑줄만 그어 나라.)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촉각적 이미지 or 정서이기도 함.)

국어 영역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설명을 위한 밑줄. 밑줄만 그어 나라.)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끊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정서로서)

④ 차분히 읽기.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문, 가능한 것들] - 수업용

(나)

- ① 연 구분 없으니까 문장 단위로 끊어 읽기
- ② 보이면 밑줄 긋기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 ① 상황 : 귀향(고향에 돌아옴)
- ② 정서 : 어설피하며(어색해하며 정도)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객관화 / 거리감)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공각지로 군불을 피우고 /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이 시를 볼 때, 실전에서 보이기 힘들겠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을 하나 설명하고자 표시를 했다. 결국 이 긴 글을 압축하면 어머니는 / (아들을 위해)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 (오빠를) 반가워하고 아버지는 / (아들을 위해) 오리를 잡는다. 즉 이 부분은 문장의 구조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기억하자. 현대시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같으면 안에 어떤 시어를 써도 내용이 같다. 즉 구조가 같으면 내용이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결국 이 부분도 행위의 주체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지만 결국 아들 혹은 오빠가 고향에 돌아오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가족애'라는 한 가지의 의미로 귀결된다.

③ 그냥 차분히 읽기. 해석은 안 될 것이다. 수능 때는 그냥 차분히 읽고 판단하면 된다. 그 와중에 뭐가 보이면 체크 정도 해두고 문제로 가자.

실전 훈련 1번 문제 답 : ①

①	O (정답)	<p>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 → 어딜 보게 될까?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를 보게 되어 있다. 정서는 물어본다.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정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선택지를 보고 나서는 돌아가서 친근감이라는 정서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p> <p>(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어딜 보게 될까?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피하며를 보게 되어 있다. 내가 무슨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다. 공통감을 얘기하는 거다. 기억하자. 시의 본질은 정서다. 정서는 자주 물어보니까 지문 읽을 때 보이면 체크해 두는 것이다.</p>
④	X	<p>①을 지나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르는 것이 ④일 것이다. 일단 '감' 좋은 학생들은 ④가 뭐가 틀렸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아마 문학에 감이 좋은 학생들은 '무상함'이 틀렸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무상함'이 틀렸다. 나온 김에 무상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p> <p>무상함이 정확하게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일단 무상함은 덧 없다는 뜻이다. 무상함 = 덧없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면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왜? 우리는 덧없는 게 또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상함을 단순히 허무, 허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고 정확한 건 덧없는 건데, 덧없다고 추상적이니까, 차라리 무상감이 느껴지는 문학에서의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이 낫겠다.</p> <p>[무상감]</p> <p>① 역사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타나면 무상감이 느껴진다. 즉 고전시가에서 고려가 망하고 고려 왕궁 터를 가보면 화려했던 왕궁은 없고 잡초만 남아있고, 이런 상황 본 적 있을 거다. 이러면 무상감이다.</p> <p>② 인간이 늙으면 무상감이 느껴진다. 나이들고 나니까 젊었던 시절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다. 무상감이다.</p> <p>③ 부귀공명을 다 이루고 나면 무상감이 느껴진다. 사실 부귀와 공명은 이루고 나면 별 게 아니었던 거다. 무상감이다. 부귀공명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돈은 별 게 아니야. 훗' 이러면 너무 이상하지.</p> <p>즉, 이 시에는 어떠한 상황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상감을 틀렸다. 무상감을 판단할 때 저 세 가지 상황으로 판단해도 좋지만, 반대로 고전시가에서 저런 세 가지 상황이 제시되면 '무상감'으로 바로 내용을 치환해 버려도 된다.</p> <p>-----</p> <p>[사실관계]</p> <p>이 선택지는 사실 감이 빠르면 무상감을 갖지만, 사실관계로 따졌을 때 하나 더 틀린 게 있다. 스스로 선택지 앞부분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지문에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해설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p> <p>바로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이 부분도 틀렸다. 지문 돌아가서 확인해 보라. 떠돌아다니는 것은 장꾼이지 화자가 아니다.</p>

실전 훈련 2번 문제 답 : ③

③	X (정답)	<p>㉔은 화자의 독백적 어조이지 장꾼들의 독백이 아니다. 즉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적 어조로 토로하는 거 아니니까 그어버리면 된다. ④의 객관화만 확인하고 넘어간다.</p>
---	-----------	--

국어 영역

실전 훈련 3번 문제 답 : ①

가끔 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현장 강의에서는 온전히 나의 의도가 100% 전달이 되는데, 글로 쓰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걸 좀 이해해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3주간의 설명을 모아 현대시 <보기> 문제의 매뉴얼을 설명할 건데, 이게 잘 와 닿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설명하겠다. 이게 너희 것이 되면 현대시 <보기>는 거의 틀릴 일이 없다. 일단 본격적인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읽는다.

[현대시 <보기> 해결의 전제]

- 생각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선택지 두 개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으로 선택지 세 개를 지워낸 것이다. 두 개는 감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므로 이미 '감'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개 중 하나가 고민되면 일단 문제와 거리를 둔다. 즉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이다.

- 현대시 <보기> 문제의 문제 상황은 두 가지로 인해 시작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기>를 열심히 읽지 않는 것 혹은 열심히 읽어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이런 구멍들이 고민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어차피 실제 시험 때에도 낯선 작품이 나와 시를 해석하기 힘들 것이고, 급한 상황에서 <보기>를 완벽히 이해할 리도 없다. 따라서 차라리 △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보통 △는 '결이 같은데 실체를 모를 때' 발생한다.

- 결론이다. △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답 선택지는 무조건 사실관계로 해결이 된다. 특히 수능이라는 시험이라면, 오답 선택지는 해석을 요구하여 헛갈리게 만들 수 있지만, 정답 선택지는 사실관계로 해결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관계'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습관이다. 그리고 행동이다.

결국 수능에서 정답 선택지의 근거는 사실관계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사실관계 판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 그 세 가지를 덧붙여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것은 오답 선택지에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정답 선택지는 무조건 이 셋 중 하나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택지의 형태를 먼저 일반화 해보겠다.

- A를 통해 / B가 드러난다.
- A는 / B라고 볼 수 있겠다.

설명에 앞서, 선택지를 반으로 끊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되게 좋다. 선택지를 한 번에 읽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감으로 풀겠다는 것이지만, 선택지를 끊겠다는 얘기는 감으로 풀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각각 따져보겠다는 습관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A는 지문의 한 구절이 되고, B는 <보기>의 어떤 표현이 된다. 물론 B의 경우 <보기>의 말을 그대로 쓸 때도 있고 조금 말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이 선택지가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지적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이겠지만(A가 틀리든 B가 틀리든), 사실 세 가지로 틀릴 수 있다.

- ① 지문 일치 : A가 틀린 거다.(현대시에는 거의 없다.)
- 지문 일치의 경우 선택지의 앞부분, 즉 구절 부분이 그냥 틀린 건데, 이거는 현대시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현대 소설에서 중요해서 그렇다. 어쨌든 A가 틀린 거!

② 관련성 : A와 B의 인과, 관련성을 따지는 거다.(가장 중요)

-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다. A라는 구절과 B가 관련이 없는 거다. 이 때 우리는 선택지를 우선 감으로 먼저 죽 읽고 판단하고, 이 상태에서 감으로 판단이 안 되면, 그때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된다.

지문의 A 구절로 돌아간다. → A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A가 포함된 의미단위 전부를 정독한다. → 그리고 B가 맞는지 판단한다(해석X)

사실 이게 다다. 이거만 잘하면 수능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다. 감으로 지워놓고 고민이 되면 그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해당하는 구절 돌아가서 속도 줄여서 차분히 그 의미단위(연, 혹은 문장) 다 읽고, 그리고 B가 맞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다. 이걸 잘하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건데, 그때 다음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다.

③ 지문 전체 맥락 : 이 지문에 B가 없다.

- 쉽게 말해 이 지문 전체에 B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이 화자의 비판 의식을 보여준다고 하자. 그 구절 돌아가서 판단해보니 비판 의식이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지문 전체에 화자의 비판 의식이 있는지, 즉 이 시가 그런 시인지 확인해보면 된다. 만약 이 시 자체가 비판 의식과 관련된 작품이 아니라면 그 구절 역시 비판 의식일 리가 없다. 전체가 아닌데 일부가 어떻게 그게 될까.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정답 선택지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즉 평소에는 너희들이 가진 감으로 열심히 풀러라. 단 고민이 되는 순간 거리 두고, 이 선택지를 반으로 자른 후, 지문 돌아가서 읽고 판단을 하든, 이 지문 전체에 이런 게 있는지를 따져보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고르라는 것이다.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보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익숙)

밀줄 친 형식의 말에는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사실 <보기>보다는 평론과 문학이 같이 나오는 지문에서 중요할 텐데, 밀줄 친 문장은 두 개의 설명이다. 1) 고향이 변해 있거나 2)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지문도 두 개다. 이러면 각각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 대응해보자. 1)의 경우 (가)가 되고, 2)의 경우 (나)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게 가능해지니까 익숙해지라는 거다. 시험 때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기 힘들다. 많이 보다보니 이게 대응 되는 것이 보이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든 (나)든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42%밖에 안 되는 문제였다. 실제 시험 때 현대시 <보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능 때 정답 선택지는 사실 관계로 끝난다.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들은 고민이 되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앞서 설명했던 <보기> 매뉴얼을 이 선택지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① X (정답)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다.

[사실 관계]

1) 지문 일치 :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 슬픔 공감(△)

2) 관련성 : 지문 → 의미단위 정독 → 판단

- 우선 지문의 3연으로 돌아간다.(지문)

-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 양귀비 끊어다 놓고 /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의미 단위 정독)

- 타인과의 조화 없음(판단)

국어 영역

		<p>3) 지문 전체 맥락 - 이 시에 귀향을 완성하려 하는 거 없다.(맥락)</p> <p>이러면 끝난다. 지문 전체 맥락의 경우 <보기>의 표현에 주목한다. (가)든 (나)든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가) 시에는 귀향을 완성하려는 거 없을 거다. 끝!</p> <p>[<보기>의 의도대로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사실 <보기>의 의도에 따라 (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지문을 이미 알고 있다면 답을 정말 명확히 고를 수 있겠다. 1, 2주 동안 우리는 그것만 한 거다. 알거나 해석할 수 있다면 판단 기준은 O or X 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현대시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번 (가)를 명확히 이해해보자.(시험 때 못하는 거다.) 아까 지문에 밑줄 그으라고 했던 두 부분 같이 떠올리면 된다.</p> <p>1) 제목 : 고향 앞에서 2) 화자는 진중일 서성거림 3) 고향 가까운 주막에 감 4) 심지어 장꾼들에게 고향이 어떤지 물어봄. 화자는 고향에 갔나? 안 갔다. 간 적이 없다. 그냥 앞에서 얼정거리고 있는 거다. 굳이 이해하자면 갔다가 변화를 확인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답은 ①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석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정답은 사실 관계로 떨어진다.</p>
③	O	<p>보통 ①을 넘어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르는 것이 ③, ④다. 그 이유는 ③과 ④를 동시에 보면 둘이 마치 모순인 것처럼 느껴져서. 즉 답은 ③이나 ④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다.</p> <p>우선 ③부터 보자. 보통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③을 보면 멍청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언제나 고향은 좋은 곳이었다. 즉 '고향은 좋은 곳(+)'이고 이상적인 공간 역시 좋은 곳(+)'이니까 고향은 이상적 공간이겠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우선 이상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정확히 알아두자. 이상적 = 완전무결이다. 정확히는 이상적 공간이라면 현실적, 물리적, 정신적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릉도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즉 좋은 것과 이상적인 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학원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학원이 이상적인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구분하자.</p>
④	O	<p>④의 경우는 아까 지문 설명하면서 이미 말을 했다. 가족애의 공간은 적절하다.</p> <p>즉 ③과 ④는 모순되는 요소가 아니다. 가족애가 넘치는 좋은 공간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난하니 이상적인 공간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p>

[3주차] 문학 수업 지문

실전 훈련 2.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아름다운 관계

<p>[수업 내용 주요 사항]</p> <p>① 현대시는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②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③ 다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차분히 읽는다. 연 구분이 있으면 연의 의미 단위로, 연 구분이 없으면 문장이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④ 시는 정서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표시해주면 좋다. ⑤ 반복되면 중요하다.</p> <p>[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를 적극적으로 활용.</p> <p>⑥ 시인과 독자에게 있어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 즉 같은 상황이어도 느끼는 감수성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p>

<p>[지문 해설]</p> <p>오늘부터는 해설이 문제 풀이 해설 쪽으로 가게 된다. 이 와중에 <보기> 문제 푸는 매뉴얼까지 확실하게 체화해보도록 하자.</p>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가)</p> <p>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p> <p>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p> <p>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p> <p>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p>
<p>(나)</p> <p>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p>

국어 영역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대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쓸쓸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에 나, 풀꽃 한 포기 위해
 몸의 한편 내어 준 적 있었는가 피워 본 적 있었던가
 -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

[지문, 가능한 것들] - 수업용 (가)

- ① 제목 확인
- ② 연 단위로 끊어 읽기
- ③ 보이면 밑줄 긋기
- 반복되는 말이 많다. 반복되는 말에 체크하면서 넘어가자.
- 1) 눈이 내린다 2) 나타샤를 사랑

-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체크하자.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정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정서 : 현실 도피)

- ④ 차분히 읽기.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문, 가능한 것들] - 수업용 (나)

- ① 연 단위, 문장 단위로 끊어 읽기
- ② 보이면 밑줄 긋기

흐르고 흘렀던가
 - 시간 변화(문학에서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다. 보이면 체크)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에 나, 풀꽃 한 포기 위해
 몸의 한편 내어 준 적 있었는가 피워 본 적 있었던가
 - 시상 전환(관심사의 변화 : 바위 → 나 / 주제 : 성찰)

- ③ 그냥 차분히 읽기. 해석은 안 될 것이다. 수능 때는 그냥 차분히 읽고 판단하면 된다. 그 와중에 뭐가 보이면 체크 정도 해두고 문제로 가자.

실전 훈련 1번 문제 답 : ㉠

③	X (정답)	(가)에 설의적 표현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의 센스와 관련된 것인데, ①~⑤까지 스캔해보라. ①과 ②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③~⑤는 두 작품 모두를 묻는다. 과연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하나짜리를 묻고 싶을까 두 개짜리를 묻고 싶을까. 당연히 두 개짜리를 묻고 싶은 것이다. 물론 이것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람은 써먹으면 되게 좋다. 특히 화작에서 진짜 좋을 때가 많다. 실제로 2020학년도 6평 때에는 이런 문제가 무려 6문제나 출제되었고, 실제로 모두 두 개를 묻는 선택지가 답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야 하는 학생들은 습관을 들여 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다. 100%는 아니다. 그럴 때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이다.
---	-----------	---

실전 훈련 2번 문제 답 : ㉡

①	X	㉡은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 변화는 물어본다. 즉 시상 전환 묻는 거다.
②	X	개념어 두 개 판단기준은 알아두자. [환상적] = 비현실적 [애상적] = ① 슬픔 ② 쓸쓸한 분위기(시의 분위기)
③	X	[관조적] = ① 관찰, 시선 ②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 그러나 보통 수능에서 관조가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조가 맞다고 판단할 일보다, 관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즉 확실히 관조가 아닌 경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다. [관조X] 1) 영탄이 있으면 2) 화자의 주관적 서술이나 묘사가 강하면 (자연에서 폭포를 관찰하는 화자가 '은하수 같다.'라고 하면 관조라고 볼 수 없다. 관찰은 있으나, 은하수 같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⑤	O (정답)	너무 확실해서. 월간지 내의 해설만 봐도 될 것 같다. ㉡에는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산골로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이(현실 도피의 염원) 드러나고, ㉢에서는 바위 얘기 하다가 바위를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성찰이 맞다. 나온 김에 성찰도 정리할까? [성찰] '반성'과는 다르다. 반성을 포함하는 개념. 1)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2)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3) 삶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성찰이다.

실전 훈련 3번 문제 답 : ㉢

사실 관계 판단 다시 연습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선택지] - A를 통해 / B가 드러난다. - A는 / B라고 볼 수 있겠군.
[사실 관계 판단 매뉴얼] ① 지문 일치 : A가 틀린 거다.(현대시에는 거의 없다.) - 지문 일치의 경우 선택지의 앞부분, 즉 구절 부분이 그냥 틀린 건데, 이거는 현대시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현대 소설에서 중요해서 그렇다. 어쨌든 A가 틀린 거! ② 관련성 : A와 B의 인과, 관련성을 따지는 거다.(가장 중요) -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다. A라는 구절과 B가 관련이 없는 거다. 이

국어 영역

때 우리는 선택지를 우선 감으로 먼저 죽 읽고 판단하고, 이 상태에서 감으로 판단이 안 되면, 그때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된다.
 지문의 A 구절로 돌아간다. → A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A가 포함된 의미단위 전부를 정독한다. → 그리고 B가 맞는지 판단한다(해석X)
 사실 이게 다다. 이거만 잘하면 수능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나 무조건 '감'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다. 감으로 지워놓고 고민이 되면 그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해당하는 구절 돌아가서 속도 줄여서 차분히 그 의미단위(연, 혹은 문장) 다 읽고, 그리고 B가 맞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다. 이걸 잘하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건데, 그때 다음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다.
 ③ 지문 전체 맥락 : 이 지문에 B가 없다.
 - 쉽게 말해 이 지문 전체에 B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이 화자의 비판 의식을 보여준다고 하자. 그 구절 돌아가서 판단해보니 비판 의식이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지문 전체에 화자의 비판 의식이 있는지, 즉 이 시가 그런 시인지 확인해보면 된다. 만약 이 시 자체가 비판 의식과 관련된 작품이 아니라면 그 구절 역시 비판 의식일 리가 없다. 전체가 아닌데 일부가 어떻게 그게 될까.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정답 선택지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즉 평소에는 너희들이 가진 감으로 열심히 풀러라. 단 고민이 되는 순간 거리 두고, 이 선택지를 반으로 자른 후, 지문 돌아가서 읽고 판단을 하든, 이 지문 전체에 이런 게 있는지를 따져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고르라는 것이다.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보기>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무수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순수를 지향하며 단결과 고립을 자처하기도 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용하며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익숙) 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계를 대하는 저마다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탐지할 수 있다.

밀줄 친 형식의 말에는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사실 <보기>보다는 평론과 문학이 같이 나오는 지문에서 중요할 텐데, 밀줄 친 문장은 두 개의 설명이다. 1)순수를 지향하며 단결과 고립을 자처 2)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 포용. 지문도 두 개다. 이러한 각각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 대응해보자. 1)의 경우 (가)가 되고, 2)의 경우 (나)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게 가능해지니까 익숙해지라는 거다. 시험 때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기 힘들다. 많이 보다보니까 이게 대응 되는 것이 보이는 거지.

이 문제는 정답률이 56%밖에 안 되는 문제였다. 실제 시험 때 현대시 <보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능 때 정답 선택지는 사실 관계로 끝난다.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특히 ③을 그냥 지나쳤던 학생들은 꼭 지금 하는 말을 가슴에 담아두길 바란다.

③ (나)에서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X (정답)

스스로 자문해봐라. ③을 골랐다면 ' / '를 기준으로 앞을 그었는지. 뒤를 그었는지. 물론 뒤도 틀렸다. 그러나 앞을 그었으면 좋겠다.

[사실 관계]

(나)에서 '바위'는 /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2) 관련성 : 지문 → 의미단위 정독 → 판단
 - 우선 지문의 4행으로 돌아간다.(지문)
 -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짝을 띄웠지만 /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의미단위 정독)
 - 작은 풀씨 생명력 없음.(판단)

우리는 왜 대체 이렇게 간단한 ③의 앞부분을 지나치게 될까? 특히 감으로 푸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풀씨는 문학에서 생명력이 있는 쪽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사실 실전에서 이 시를 읽을 때, 시간의 변화에 유의해서 읽을 수 있다면, ③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다.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짝을 띄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중략>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쓸쓸 하나 날아와 안겼지

즉, 시간이 흐르기 전, 바위에게 작은 풀씨들이 날아왔으니 말라죽었고, 시간이 흘러 바위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품이 넓어지자, 쓸쓸 하나가 날아와 바위의 희생으로 소나무가 되었다는 내용이 이 시의 주된 내용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풀씨와 쓸쓸을 구분하며 읽을 수 있다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것을 구분하며 읽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 판단이 중요한 거다.

[사실 관계]

그렇다면 선택지 뒷부분 역시 가부판단을 해보자.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 관련성 : 지문 → 의미단위 정독 → 판단

- 우선 시의 16~18행을 돌아간다(지문)

-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의미단위 정독)

- 선후관계가 틀렸다.

선택지 : 강물 소리, 노래 소리 → 소나무

지문 : 소나무 → 강물 소리, 노래 소리

- 돌아가서 읽을 땐, 처음에 지문 읽는 속도로 읽으면 안 된다. 속도를 줄여 차분히 읽어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다. 돌아가서 차분히 읽으면 확실히 선후 관계가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끔 계속 신경을 써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원고의 작성이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해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역시 많이 걱정하고, 당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가 역류로 접근하면 나는 순류를 유지하라. 나의 순류가 상대의 역류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이러한 역류에 우리가 가장 잘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제 현장 강의 학생들, 그리고 한수달 해설을 통해 저의 글을 읽는 모든 학생들이

아무일 없이 이 시간을 잘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주에 제 조교들과 저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꽤 큰 액수였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착한 일을 했으니 우리 모두 잘 될 겁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송모입니다.